

예레미야 개관

1. 개요

예레미야서는 구약 예언서 중 가장 인간적인 고통과 내면의 갈등이 드러나는 책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이라는 역사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이며,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였고, 그의 눈물이 곧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예언은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회개와 회복의 약속, 그리고 새 언약의 희망을 담고 있으며, 역사적 현실과 깊은 신학적 메시지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2. 저작 연대

예레미야의 활동은 주전 627 년경~586 년 예루살렘 멸망 직후까지 지속되었고, 그 이후까지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는 남유다 말기와 멸망 시기, 그리고 포로 초기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본인과 그의 서기관 바룩에 의해 기록되었고(렘 36:4),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적 기록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저자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입니다(렘 1:1).

20 세 전후의 젊은 나이에 소명을 받아(렘 1:6) 반역과 죄악으로 가득한 유다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선민의 패역을 고발했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끊임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며, 자신의 사명을 저항 없이 순종하며 감당한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4. 기록 목적

- 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선지자의 설교와 상징행위를 통해 알리기 위함.
-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적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살아 있음을 증거하기 위함.
- 궁극적으로,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 장차 임할 구속과 회복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

5. 단락 구분

예레미야서는 반드시 순서대로 시간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1 장 - 소명 이야기
2. 2-25 장 -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설교 모음)
3. 26-29 장 - 예언의 실제적 적용과 갈등 (예언자들과의 대립)
4. 30-33 장 - 위로의 책 (회복과 새 언약의 약속)
5. 34-45 장 - 유다 멸망과 바룩, 여호야김, 그달리야 사건 등 역사적 기록
6. 46-51 장 -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
7. 52 장 - 예루살렘 멸망의 역사적 결말

6. 중심 메시지

“돌이켜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심판은 피할 수 없으나, 주께서는 끝내 너희를 새 언약으로 다시 부르실 것이다.”

예레미야서는 무너진 현실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의 언약**이 빛납니다.

가장 핵심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렘 31:31-34)

7. 신학적 이슈

① 새 언약 (렘 31장)

- 예레미야는 구약에서 가장 명확하게 새 언약을 언급하는 선지자입니다.
- 이 새 언약은 **외적인 율법이 아닌 내적인 마음의 기록**을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성취**로 이어집니다(히 8 장 인용).

② 신정론적 고난

-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오히려 고난과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은 **옅기적인 신정론**과 연결됩니다.

③ 예언과 역사

- 거짓 예언자들과의 대립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포함됩니다.

8.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예레미야 해석

① 언약 신학의 정점으로서의 “새 언약”

- 개혁주의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복음 언약으로 봅니다. 이는 율법의 외적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순종과 관계를 강조합니다.

② 성경의 유기적 통일성과 예표적 해석

- 예레미야서의 회복 예언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말론적 회복을 예표하는 것으로 봅니다.

③ 설교자, 목회자의 모범

- 예레미야는 진리를 위해 외롭게 고난받는 설교자의 전형으로, 개혁주의 목회자에게 인내와 충성의 모범이 됩니다.

칼빈은 예레미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죽음과 조롱,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단 한 순간도 버리지 않았던 종이였다.”